

#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및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

##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School-Aged Children's Strategies and Competence of Emotional Regulation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사 박서정\*

성균관대학교 가족경영·소비자학 전공

교수 김순옥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Lecturer : Park, Seo-Jung

Dept. of Family Life Management and Consumer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 Kim, Soon-Ok

---

### 〈Abstract〉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s on children's strategies and competence of emotional regulation was examined. Further,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active-social support seeking and aggressive strategies on the above relationship were explored. The participants were 607 mother-child pairs. The children were 5th and 6th graders at two elementary schools in Kyunggi province and Kwangju metropolitan area.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Pearson correlations, standard multiple regress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by LISREL 8.3.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ore the mothers coached children with affection and reasoning, the more 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the children had; whereas children tended to have mal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in response to the mothers' rejecting and forceful parenting behaviors. Also, when children were coached by mothers with love, reasoning and consistent restriction, they used more active-social support seeking strategies, whereas they used more aggressive strategies when the mothers coached children with rejecting and forceful parenting behaviors. The more the mothers were rejecting, forceful and intervening, the more the children used passive-avoidant strategies. (2) The more the children used active-social support seeking strategies and the less the children used aggressive strategies, the more likely they had 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The more the children used aggressive strategies, the more likely they had mal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3) Children's active-social support seeking strategies played a partial mediating role between mothers' affectionate and reasoned coaching and children's 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These strategies, on the other hand, played a full mediating role between mothers' consistent restriction and children's 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Children's aggressive strategies played a partial mediating role between mothers' rejecting and forceful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mal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Mothers' non-intervention had an influence on neither the children's aggressive strategies nor their mal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

▲주요어(Key Words) :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s), 정서조절 능력(competence of emotional regulation), 정서조절 전략(strategies of emotional regulation)

## 1.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정서적 능력을 강조하는 정서지능에서 중요 하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서조절은 타인과의 관계형성과 상호작용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에 비해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외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정서 조절(emotional regulation), 정서 통제(emotional control), 감정 조절(affect regulation), 정서 관리(emotion management) 등의 개념으로 꾸준히 연구되어져 왔고, 연구의 대상은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를 두루 포함하며, 측정하는 상황 또한 부모나 또래 등의 가깝고 친밀한 관계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부터 공적인 영역에서의 공공행위까지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Cole, Martin, & Dennis, 2004).

가족체계이론이나 맥락주의 등을 바탕으로 정서조절의 개인차를 유발하는 원인 규명과 다른 문제행동 및 우울증상 등의 부적응행동과 연관지어 정서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는 맥락주의자들은 사회화 환경인 부모나 교사,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의 개인차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Eisenberg, Fabes, Carlo, Troyer, Speer, Karbon, & Switzer, 1992). Parke(1994)는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직접적인 노출과 부모의 지도로 인해 부모에게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정서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정서표현, 반응, 애착, 상호작용 등의 환경적 요인들을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조절은 아동의 내적 특성과 사회정서적 경험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발달적 획득과정으로 보여져야 하며, 사회문화적 발달 맥락 내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특성이나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아동의 정서조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Bridges, Denham과 Ganiban(2004)은 정서조절에 대한 측정방법에 대한 결정은 정서조절에 대한 근원적인 개념화가 이루어진 후 가능하며, 정서조절 전략 사용의 양에 초점을 두는지 정서조절 전략의 유형에 초점을 두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유아와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연구는 조절행동의 강도나 빈도가 평가되는 코딩 시스템을 사용해 왔고, 특히 부정적 정서조절에 관한 연구에서 더 많은 조절이 보다는 조절을 의미한다고 느끼는 이러한 개념화는 사용된 전략에 상관없이 보다 많은 조절이 더 낮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의 표현과 관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이끈다(Bridges et al., 2004). 그러나 다른 상황, 환경에서 어떠한 조절전략을 사용하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더 많은 조절만이 확립적으로 더 좋은 정서조절 능력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Gross, 1998). 따라서 정서조절 능력과 정서조절 전략에 관한 명확한 구별과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며, 측정에 있어서도 아동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정서

조절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서조절의 능력의 파악과 함께 아동의 감정이 자극받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떠한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포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기존 연구는 부모의 행동변인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순히 부모의 행동변인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데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효과적인 정서조절을 위해서는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아동의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능력은 스트레스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거나 실행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Thompson, 1994).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는 없지만, 부모의 행동변인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관한 연구,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과 문제행동 및 또래유능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아동의 조절을 통해 문제행동 및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Eisenberg, Gershoff, Fabes, Shepard, Cumberland, Losoya, Guthrie와 Murphy(2001)의 연구 등을 토대로 하여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이 매개역할을 하는 경로를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가장 밀접한 환경인 동시에 직접적 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특성이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매개되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의 유능한 정서조절을 위한 어머니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바람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무엇인지 규명하여 어머니들로 하여금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정서조절 전략과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개념의 정의와 측정방법을 차별화하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정서조절 전략을 예측할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설명하고 둘째, 아동이 사용하는 구체적 정서조절 전략이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매개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정서조절의 개념

Thompson(1994)에 의하면 효과적 정서조절이란 단순히 공격행동과 같은 부정적 행동들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자극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Shields와 Cicchetti(1998)는 정서조절의 개념에 대하여 부적절성/부정성과 정서조절의 두 측면에서 정의하였는데, 부적절성/부정성은 기분의 변화가 심하며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되며, 정서조절은 상황에 적합한 정서표현을 하며 공감, 정서 지각이 뛰어난을 의미한다. Bridges 등

(2004)도 조절(regulation)과 비조절(dysregulation)에 대한 구별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적응적 정서조절은 강화된 부정성을 줄이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상태를 시작하고 유지함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상 연구자들의 정서조절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내린 정서조절의 개념은 정서 표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정서 표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극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측정하는 정서조절 능력이란 자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표현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정적 정서를 바로잡고 최소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고 적절한 긍정적 정서표현의 유지와 조화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감정적 부적절성, 강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 적응성, 상황 적합성 등의 정서과정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며, 적응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두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적응적 정서조절이란 상황에 적합한 정서표현을 하며 공감, 정서 지각이 뛰어남을 의미하며,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기분의 변화가 심하며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정서조절 전략의 개념 및 유형

정서조절 전략은 감정이 자극받는 특정한 상황에서 감정의 조절을 위해 아동이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대처행동이다.

Denham(1998)에 의하면 정서조절의 행동적 구성요소인 대처 전략은 정서적 전략, 인지/지각적 전략, 행동적 전략으로 구분되어 아동의 얼굴표정이나 목소리 또는 생리적인 표현반응이나 인지적 평가 또는 행동적 전략의 규정 등을 포함한다.

한편, Ayers, Sandler, Bernzwing, Harrison, Wampler, 그리고 Lustig(1990)는 9~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13가지 대처반응 유형을 개발하였고 Ayers(1991)는 다시 요인분석을 통해 적극적 대처행동, 주의 전환적 대처행동, 회피적 대처행동, 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의 4개의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

Eisenberg 등(Eisenberg, Fabes, Bernzweig, Karbon, Poulin, & Hanish, 1993; Eisenberg, Fabes, Murphy, Maszk, Smith, & Karbon, 1995)이 Ayers 등(1990)이 개발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으로 사용한 후, Saarni(1997)는 아동과의 그림 인터뷰를 통하여 문제해결 전략, 지지추구 전략, 거리둠/위축, 내면화 전략, 외재화 전략의 5가지 범주로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을 측정하였다. Connor-Smith, Compas, Wadsworth, Thomsen과 Saltzman(2000)은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3개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을 4개의 범주 -1차적 전략(문제해결, 정서 표현), 2차적 전략(인지적 재구성, 수용, 전환, 긍정적 사고), 비적극적 참여 전략

(부인, 회피, 도망, 무활동), 무의식적·비자발적 참여 전략(충동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행동)-로 나누어 정서조절 전략을 측정하였다. 국내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민하영과 유안진(1998)의 연구에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회피적 대처행동의 5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민하영과 유안진(1998)에 따르면 스트레스 대처행동이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성공적 해결여부와 관계없이, 스트레스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아동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의미한다.

한편, 기존의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들 중에는 정서조절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가끔 불명확하거나, 측정된 정서조절과 이론적 개념 사이의 관계가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 있다. 연구자에 따라 정서조절 전략을 정서조절 능력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뚜렷한 개념 정의 없이 이론적 배경에서는 정서조절 능력에 대해 부정적 감정의 최소화라고 정의지어 놓고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서조절 전략으로 대체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전략을 감정이 자극받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감정의 조절을 위해 아동이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의도적, 인지적, 행동적인 대처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으로서의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을 살펴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본 연구의 정서조절 전략의 개념과 일치하는 민하영과 유안진(1998)의 척도가 정서조절 전략을 측정하는 데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Eisenberg 등(Eisenberg et al., 1993; Eisenberg et al., 1995), 그리고 Saarni(1997)와 Connor-Smith 등(2000)의 연구에서 정서조절 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사용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민하영과 유안진(1998)의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정서조절 전략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과 정서조절 능력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의 관련성을 본 Patterson과 McCubbin(1987)의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 의하면, 정보추구 전략이나 문제해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보다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Garber 등은 초기 청소년의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일련의 연구(Garber, Braafladt, & Weiss, 1995; Garber, Braafladt, & Zeman, 1991)에서 우울장애로 진단된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보다 문제중심 전략과 적극적 전환 전략을 덜 사용했고, 회피적, 수동적, 공격적 전략을 많이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초기 청소년 대상의 다른 연구들(Buss & Goldsmith, 1998; Gillom,

Shaw, Beck, Schonberg, & Lukon, 2002)은 청소년의 전환이나 주의 돌리기 같은 적극적인 전략은 디스트레스의 감소와 관련 있는 반면, 스트레스 자극에 수동적인 전략은 디스트레스의 증가와 외재화 문제행동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서 Silk 등(2003)의 연구에서 비적극적 참여와 무의식적 참여가 정서조절에 대한 영향에 가장 역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이 부인, 회피 등의 비적극적 참여 전략을 사용하여 정서를 다루거나 무의식적, 충동적으로 화나 슬픔에 반응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화와 슬픔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비참여적, 비자발적이고 무의식적인 전략 즉, 충동적이거나 공격적, 회피, 부인, 소극적 행동의 전략의 사용이 정서의 부적응적인 조절이나 문제행동 및 우울증상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과 문제행동 및 또래 유능성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라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과 정서조절 능력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 4.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및 정서조절 능력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Kopp(1982)는 아동이 유능한 자기조절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주요대상인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안미경(1997)과 홍애경(2001) 역시 어머니가 온정·수용적이고 민주·자율적일수록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Gottman과 Katz(1989)는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가 냉정하고 무반응적이고 제한 설정이 부족할수록 유아는 분노를 많이 표현하며 순종적이지 않고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Eisenberg 등(1992)은 5~6세와 8~9세 대상의 연구에서 거부적이고 엄격한 어머니는 아동의 정서와 관련된 표현을 많이 통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머니의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다루는 것을 불안해하고 동정적이며 슬픈 정서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Mcfadyen-Ketchum, Bates, Dodge와 Petit(1996)는 어머니의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서조절 전략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냉담하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유아로 하여금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하도록 하며 이러한 유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유발된 공격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Shields & Cicchetti, 1998).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박혜경(2002)의 연구에서 아동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행동 및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아동의 기능적 정서조절은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및 개방적 의사소통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희수(2002)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애정적, 일관성 있는 규제는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과보호적, 지시/통제적, 거부/적대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 회피와 정적 관계가 있었다.

한편, 경로모형을 이용하여 자녀에 대한 정서 지도와 자신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지각을 연관시켜 아동의 정서조절을 살펴본 Gottman, Katz와 Hooven(1997)은 정서에 대한 높은 지각을 가진 부모일수록 아동이 효과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절 기술 발달을 촉진하게 하는 정서 지도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은 또래관계에 대한 교사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정서조절 전략, 행동문제 및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왔다. 부모가 더 많은 애정적,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행동이나 감정을 표현하여 형성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부정적 정서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며,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적응적인 조절 능력을 갖게 된다(Eisenberg et al., 2001). 또한 감정이 자극받는 상황에서의 아동의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은 스트레스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들을 선택하는 능력이나 이러한 전략들을 실행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Thompson, 1994).

어머니의 행동 특성과 관련하여 아동의 정서조절을 살펴본 연구들은 아동의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특히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와 일관성 있는 규제는 아동의 정서사회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Belsky, 1984).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환경적 맥락에서의 어머니의 양육행동 특성을 아동의 정서조절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어머니의 행동변인이 각각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정서조절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에만 치우치지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매개되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isenberg 등(2001)은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4.5~8세 유아의 조절, 문제행동, 사회적 능력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의 효과는 아동의 조절을 통해 매개되어 아동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웠다.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여 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동의 조절에 대해 어머니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표현의 효과가 있었고, 아동의 외재화 문제행동과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아동의 조절을 통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긍정적 표현은 높은 조절과 관련이 있었고, 조절은 부모의 긍정적 표현과 높은 사회적 능력 및 낮은 외재화 문제행동 사이의 관계를 매

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역시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매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신도시와 광주광역시의 중류층 거주 지역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아동과 어머니 735쌍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총 607쌍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의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아동의 조절은 학령기 때 급속하게 발달하게 되며(Murphy, Eisenberg, Fabes, Shepard, & Guthrie, 1999), 이 시기의 아동은 또래환경 등의 외부환경에 의해 여러 가지 정서적 자극을 더 경험하게 되면서 나름대로의 정서표현이나 조절전략의 규칙을 습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 막 사춘기로 진입하는 시기로서 신체적, 인지적, 심리학적인 발달이 고르게 이루어지며, 정신건강과 부적응 행동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발달단계이다. 그러나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의 초점이 주로 영유아에 치우쳐 있어 상대적으로 아동 후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상 아동의 성별 구성은 남아 42.5%, 여아 57.5%로 여아가 조금 많았으며, 연령은 12세가 47.3%, 13세가 52.7%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35세~45세가 대부분(83.4%)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2.8%, 전문대졸 이상이 57.2%였으며,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전문대 제외)이 59.2%로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모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53.4%), 아버지의 경우 사무·관리직 42.8%, 판매 서비스직 38.6%, 전문직 10.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정의 월수입은 300만원 이상이 49.2%, 100~300만원이 46.5%로 조사대상 아동의 가정은 중류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이 평가하도록 하고,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어머니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행동특성들을 상대방이 평가하도록 한 이유는 자기보고의 경우 자신의 평소 행동보다 보다 바람직한 행동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의 실제 행동은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행동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이순희, 1998), 실제적인 어머니의 행동특성보다는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행동특성이 아동의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아동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다만 특정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관해 묻는 정서조절 전략은 아동 자신이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성연(1989)과 박혜경(2001)의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애정·합리적 지도 요인, 강압 요인, 허용·방임 요인, 일관성 있는 규제 요인의 총 4요인으로 구성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아동이 평가하도록 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방법(principal component method)을 통하여 고유치와 스크리검정을 고려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으며, 직교회전인 베리펙스를 사용한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을 제거한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20문항만을 선택하여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부록 2의 표1>).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 내용을 고려하여 제1요인은 애정·합리적 지도, 제2요인은 거부·강압, 제3요인은 방임, 제4요인은 일관성 있는 규제로 명명하였다.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로 측정된 본 척도의 신뢰도는 각 하위요인별로 애정·합리적 지도는 .83, 거부·강압은 .65, 방임은 .55, 일관성 있는 규제는 .54였다.

#### 2)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민하영(1998)이 개발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상황별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타당도와 관련하여 전문가 2인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이 척도는 4가지상황에 따른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회피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5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형제나 친구와 비교해가며 야단치거나 꾸중하는 상황에서 아동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민하영(1998)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적극적이고 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의 의미로 이루어진 요인', '공격적 전략의 의미로 이루어진 요인', '소극적이고 회피적 전략의 의미로 이루어진 요인' 순으로 요인이 추출되었다(<부록 2의 표2>). 따라서 민하영의 척도의 문항내용과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의 문항내용을 바탕으로 제1요인은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 제2요인은 '공격적 전략', 제 3요인은 '소극·회피적 전략'으로 명명하였다. Likert식 4점 척도로서, 아동 자신이 직접 자신의 정서조절 전략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로 측정된 신뢰도는 각 하위요인별로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은 .78, 공격적은 전략은 .75, 소극·회피적 전략은 .72로 나타났다.

### 3)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hields와 Cicchetti (1995)에 의해 개발된 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사용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어머니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한편, Shields와 Cicchetti의 후속연구(1997)에서 요인분석에 의해 부적절성/부정성과 정서조절의 2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제1요인은 '부적응적 정서조절', 제 2요인은 '적응적 정서조절'로 명명하였다(<부록 2의 표3>).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로 측정된 신뢰도는 각 하위요인별로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81, 적응적 정서조절은 .64를 나타내었다.

### 3. 연구절차

2004년 7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해 아동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거나 측정의 도와는 다르게 이해되는 문항을 선별한 후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본조사는 2004년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경기도 신도시와 광주광역시의 중류층 거주 지역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아동과 어머니 735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아동용 질문지는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40~5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조사 당일 회수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담임 선생님들에게 회수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질문지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간에 걸쳐 연구자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의 회수율은 89%(650명)이었으며, 수집된 아동용 질문지 중에서 응답이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여 아동과 어머니 총 607쌍이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10.0 프로그램과 LISREL

8.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조사도구의 요인구성을 파악하고 타당도 검증을 위해 베리맥스 회전방식을 통한 주성분방법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를 구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정서조절 전략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분석, 표준 중다회귀 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서조절 능력의 하위요인인 부적응적 정서조절, 적응적 정서조절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표준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변인들간의 유의한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15~.35( $p<.001$ )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대한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참고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들간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부록1에 제시되어 있다.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의 경우 거부·강압적 양육행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140, p<.01$ ), 적응적 정서조절에는 애정·합리적 지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66, p<.001$ ).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강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하는 반면, 애정·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은 적응적 정서조절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표준 중다회귀 분석

		부적응적 정서조절		적응적 정서조절	
		B	$\beta$	B	$\beta$
어머니의 양육행동	애정·합리적 지도	-.029	-.029	.268	.266***
	거부·강압	.140	.140**	.019	.019
	방임	.024	.023	-.001	-.001
	일관성 있는 규제	.019	.020	.031	.031
$R^2$		.03		.08	
$F$		3.42**		10.69***	

\*\*  $p<.01$  \*\*\*  $p<.001$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정서조절 전략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는 표준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애정·합리적 지도로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거부·강압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본 연구의 3가지 정서조절 전략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공격적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16, p<.001$ ).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방임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에게 있어서 정서조절 전략을 살펴보면,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이나 공격적 전략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며, 소극·회피적 전략만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로부터 일관성 있는 규제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설명력은 12%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격적 전략에 대해서는 13%를, 소극·회피적 전략에 대해서는 6%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3.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의 관계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이 정서조절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정서조절 능력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표준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연구결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전략은 공격적 전략인 것으로 나타났다( $\beta=.185, p<.01$ ). 적응적 정서조절의 경우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154, p<.01$ ), 그 다음으로 공격적 전략이 부적응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30, p<.01$ ). 즉,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공격적 전략을 덜 사용하는 아동일수록 적응적 정서조절을 하며, 공격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일수록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피·소극적 전략은 기대했던 바와 달리 적응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표준 중다회귀 분석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공격적		소극·회피적	
		B	$\beta$	B	$\beta$	B	$\beta$
양 육 행 동	애정·합리적지도	.252	.254***	-.041	-.042	.076	.076
	거부·강압	.125	.125**	.315	.316***	.245	.242***
	방임	-.060	-.059	.031	.032	-.106	-.104*
	일관성 있는 규제	.159	.160***	-.067	-.067	.045	.045
$R^2$		.12		.13		.06	
$F$		18.44***		20.02***		8.71***	

\* p<.05 \*\* p<.01 \*\*\* p<.001

<표 3>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정서조절 전략의 표준 중다회귀 분석

정서조절전략		부적응적 정서조절		적응적 정서조절	
		B	$\beta$	B	$\beta$
정서조절 전략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046	.046	.153	.154**
	공격적	.187	.185**	-.129	-.130**
	소극·회피적	-.016	-.015	-.068	-.068
$R^2$		.04		.04	
$F$		6.88***		6.76***	

\*\* p<.01 \*\*\* p<.001

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LISREL 8.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요인분석과 표준 중다회귀 분석을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변인들을 선정하여 적응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두가지 측면에 대한 모형을 구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3가지 전략 중 소극·회피적 전략은 정서조절 능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그런 다음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변인을 삭제하고 모형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모형을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전략에 대한 최종 수정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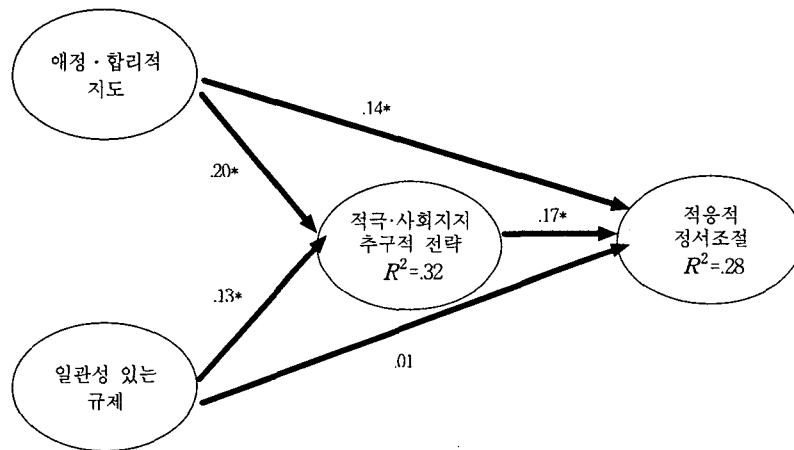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을 토대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가설적 연구모형이 적합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 ML)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sup>1)</sup>를 검증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밝히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병행하였다.

1) 양육행동의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을 매개로 한 적응적 정서조절에 대한 경로모형

(1) 연구모형1

연구모형1은 본 연구의 애정·합리적 지도와 일관성 있는 규제가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을 매개로 하여 적응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성한 연구모형이다.

본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지수는  $\chi^2$ 이 6.60, p-value가 .04로 유의수준 .05보다 작게 나타났으나 GFI가 .99로 높게 나왔고, NFI .93, NNFI .72, CFI .94로 비교적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RMSEA는 .077,  $\chi^2/df$ 은 2.2로 나타났다(<표 4>).



<그림 1> 양육행동의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을 매개로 한 적응적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경로계수(연구모형1)

<표 4> 연구모형(모형1)에 대한 적합도 지수

적합도지수	$\chi^2$	df	p	$\chi^2/df$	GFI	AGFI	RMSEA	NFI	NNFI	CFI
연구모형	6.60	3	.04	2.2	.99	.95	.077	.93	.72	.94

1)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의 평가는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chi^2$  검정은 확률값 (p)이 .05보다 크면 모델이 적합하다고 평가하며, 적합지수 GFI(goodness-of-fit index)와 AGFI는 보편적으로 .90이상이 되면 좋은 모형으로 평가받는다(배병렬, 2004). 또한 카이제곱/자유도비율( $\chi^2/df$ )이 2보다

작은 값을 가질때 좋은 적합도로 평가하며, 근사오차평균제곱의 이중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RMSEA)의 경우 보통 .10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하였다(Browne & Cudeck, 1993). 이외에도 NNFI(TLI), NFI, CFI 등은 .90이상이 되면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조선배,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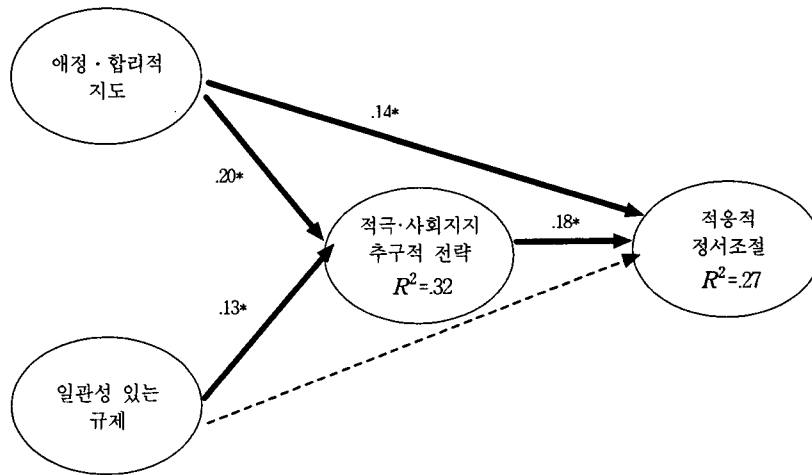
(2) 수정모형1

연구모형1에 대한 수정모형1에서는 일관성 있는 규제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배제하고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으로의 직접효과 및 적응적 정서조절로의 간접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수정모형1의 적합도가 연구모형에 비해 개선되었는지를 살펴보면(<표 5>), GFI .99, NFI .93, NNFI .79, CFI .94로 여전히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chi^2$ 이 7.51, p-value가 .06로 유의수준 .05보다 크게 나타났고,  $\chi^2/df$ 은 1.88로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며, RMSEA은 .067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연구모형1에 비해 적합도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전반적인 부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본 수정모형은 바람직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애정·합리적 지도와 일관성 있는 규제가 아동의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을 매개로 어떠한 경로를 거쳐 적응적 정서조절을 설명해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간 관계의 경로계수를 분석하였다(<표 6>)



<그림 2> 양육행동의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을 매개로 한 적응적 정서조절에 대한 수정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경로계수(수정모형1)

<표 5> 수정모형1에 대한 적합도 지수

적합도지수	$\chi^2$	df	p	$\chi^2/df$	GFI	AGFI	RMSEA	NFI	NNFI	CFI
수정모형	7.51	4	.06	1.88	.99	.96	.067	.93	.79	.94

<표 6> 양육행동과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 및 적응적 정서조절 간의 경로분석 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애정·합리적 지도 → 적응적 정서조절	.14*	.03*	.17
일관성 있는 규제 → 적응적 정서조절	-	.02*	.03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 → 적응적 정서조절	.18*	-	.18
애정·합리적 지도 →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	.20*	-	.20
일관성 있는 규제 →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	.13*	-	.13

\*p<.05

양육행동과 매개변인인 정서조절 전략의 적응적 정서조절로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정·합리적 지도는 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효과( $t=3.54, p<.05$ )가 있었으며,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을 매개로 한 적응적 정서조절로의 간접효과( $t=3.25, p<.05$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을 통한 독립변인의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Holmbeck, 1997), 만약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면서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매개변인은 완전매개(full mediation)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면서 직접효과 역시 유의하게 나타나면 매개변인은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 역할을 하는 것이다(Holye & Smith, 1994). 따라서 애정·합리적 지도와 적응적 정서조절 간의 관계에서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일관성 있는 규제는 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을 통한 간접효과( $t=2.61, p<.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규제와 적응적 정서조절 간의 관계에서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애정·합리적 지도와 일관성 있는 규제는 적응적 정서조절에 대해 27%를 설명하였고,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에 대해 32%를 설명하였다.

2) 양육행동의 공격적 전략을 매개로 한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대한 경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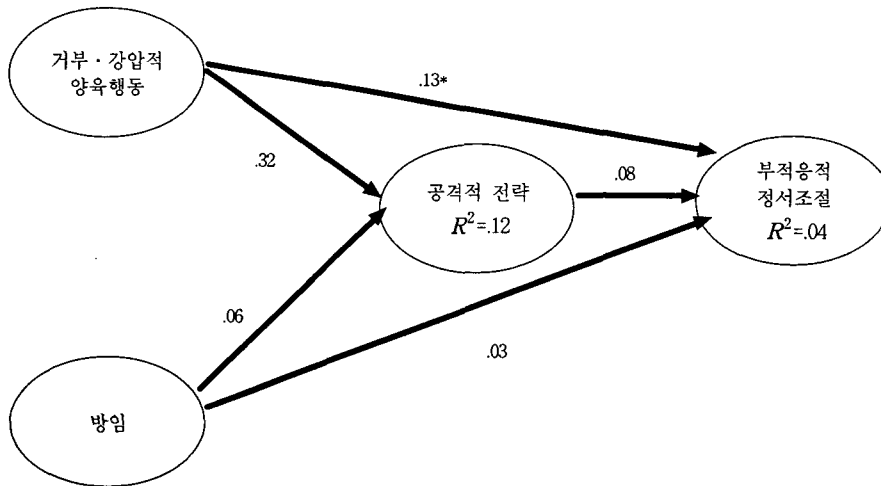
(1) 연구모형2

연구모형2는 거부·강압적 양육행동과 방임이 공격적 전략을 매개로 하여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성된 연구모형이다.

연구모형2에 대한 적합지수를 살펴보면 GFI가 .99로 높게 나타났다지만, 카이제곱값( $\chi^2$ )이 9.15, p-value가 .00로 유의수준 .05보다 매우 작게 나타났으며, 카이제곱/자유도비율( $\chi^2/df$ )은 3.05로 2보다 큰 값을 가지므로 적합도가 그다지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외에 NFI .85, NNFI .28, CFI .86, RMSEA는 .098로 나타났다(<표 7>)

(2) 수정모형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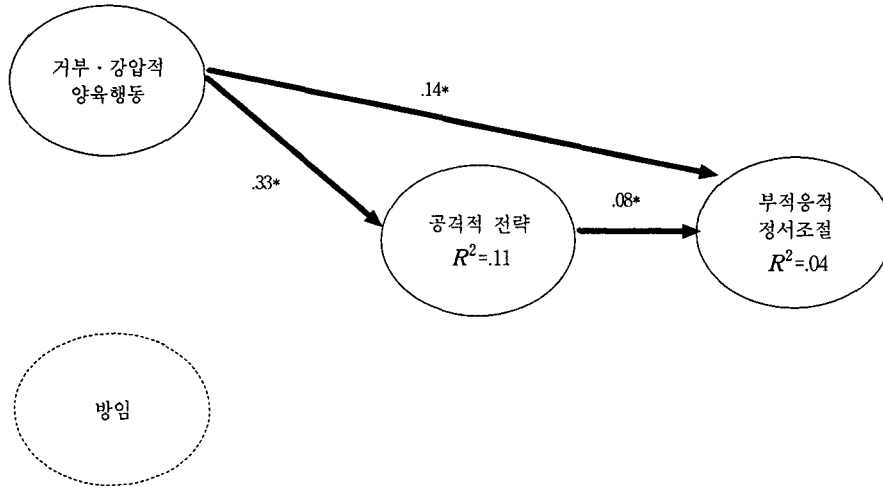
연구모형2에 대한 수정모형2에서는 방임의 공격적 전략에 대한 직접효과와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대한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 양육행동의 공격적 전략을 매개로 한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경로계수(연구모형2)

<표 7> 연구모형2에 대한 적합도 지수

적합도지수	$\chi^2$	df	p	$\chi^2/df$	GFI	AGFI	RMSEA	NFI	NNFI	CFI
연구모형	9.15	3	.00	3.05	.99	.92	.098	.85	.28	.86



<그림 4> 양육행동의 공격적 전략을 매개로 한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대한 수정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경로계수(수정모형2)

수정모형2의 적합도가 연구모형2에 비해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적합지수들을 살펴보면(<표 8>),  $\chi^2$ 이 9.97, p-value가 .00으로 유의수준 .05보다 작게 나타났지만,  $\chi^2/df$ 이 1.99로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적합도가 좋다고 볼 수 있다. 또한 GFI가 .99, AGFI .95로 높게 나타났으며, RMSEA는 .071로 나타나 비교적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연구모형2에 비해 수정모형2의 적합도가 개선되었으며, 여러 적합지수들의 수치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본 수정모형은 바람직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거부·강압적 양육행동과 방임이 공격적 전략을 매개로 어떠한 경로를 거쳐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설명해주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간 관계의 경로계수를 분석하였다(<표 9>). 양육행동과 매개변인인 공격적 전략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로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강압적 양육행동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효과( $t=3.27, p<.05$ )가 있었으며, 공격적 전략을 매개로 한 부적응적 정서조절로의 간접효과( $t=1.97, p<.05$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부·강압적 양육행동과 부적응적 정서조절 간의 관계에서 공격적 전략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방임은 공격적 전략에 대한 직접효과와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대한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수정모형2에 대한 적합도 지수

적합도지수	$\chi^2$	df	p	$\chi^2/df$	GFI	AGFI	RMSEA	NFI	NNFI	CFI
수정모형	9.97	5	.00	1.99	.99	.95	.071	.85	.62	.87

<표 9> 양육행동과 공격적 전략 및 부적응적 정서조절 간의 경로분석 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거부·강압적 양육행동 → 부적응적 정서조절	.14*	.03*	.17
공격적 전략 → 부적응적 정서조절	.08*	-	.08
거부·강압적 양육행동 → 공격적 전략	.33*	-	.33

\*p<.05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거부·강압적 양육행동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대해 4%를 설명하였고, 공격적 전략에 대해 11%를 설명하였다. 이론변수들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론모델에서 내생변수인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변량이 예측변수들에 의해 4% 정도로 설명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내생변수가 낮은 다중상관자승치(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를 가진 것이 모델이 자료에 잘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이순목, 1990),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대한 본 수정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는 좋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정서조절 전략을 예측할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설명하여 아동의 적응적인 정서조절을 위한 어머니의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바람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애정·합리적 지도로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적응적 정서조절을 더 많이 하는 반면, 거부·강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하였다. 또한 어머니로부터 애정·합리적 지도와 일관성 있는 규제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반대로 거부·강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공격적이고 소극·회피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방임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소극·회피적 전략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강압적이고 거부적이거나 방임하는 등의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정서표현이나 정서조절 전략, 낮은 정서조절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 여러 연구결과들(Eisenberg et al., 1999; Hardy et al., 1993)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의 사회화 과정의 주체이며 주요대상인 부모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부모의 칭찬이나 따뜻함, 또는 아동으로 하여금 추론하도록 유도하는 합리적인 지도방식이나 일관성 있게 제한을 설정하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발달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어머니의 애정 결핍과 거부적인 양육행동으로 형성된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갖고 있는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다루고 표현하는 것을 불안해하며, 따라서 다른 사람에 의해 자극받는 상황에서 공격적이고도 소극적인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자 할 것이다.

둘째,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공격적인 전략을 덜 사용하는 아동일수록 적응적 정서조절을 많이 하며, 공격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일수록 부적응적 정서조

절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회피·소극적 전략은 적응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공격적 전략과 함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던 회피·소극적 전략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전략이 반드시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Kliever(199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이 높은 아동이 사회적 능력이 낮은 아동보다 회피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민하영, 1999, 재인용), Compas(1987)는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회피하는 전략이 소극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때로는 원만한 또래관계에 기여하므로 반드시 부적응적이지만은 않다고 하였다.

셋째,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었다.

먼저 적응적 정서조절에 대한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의 매개효과를 본 관계경로에서, 아동의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전략은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지도와 적응적 정서조절간의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으며, 일관성 있는 규제와 적응적 정서조절간의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대한 공격적 전략의 매개효과를 본 관계경로에서, 아동의 공격적 전략은 어머니의 거부·강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방임은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및 공격적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방임과 부적응적 정서조절간의 관계에서 공격적 전략의 매개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Hoffman-Plotkin과 Twentyman(198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에 의해 방임된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반면 공격성에 있어서는 일반 아동과 차이가 없었고, Kaufman과 Cicchetti(1989) 역시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공격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부모의 방임은 아동의 공격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보아 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위축이나 소극적인 특성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격성의 강압이론(Coercion Theory)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강압적인 행동을 하는 부모의 아동은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대처능력을 발달시키기 어렵고, 갈등을 공격성으로 전환하는 강압적 행동을 보이게 된다(Perry & Bussey, 1984). 또한 이러한 아동은 감정이 자극받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공격적인 대처행동은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즉, 부모로부터 경험한 부정적인 행동들은 아동으로 하여금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결국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대로 부모가 아동에게 지지적인 경향을 보이면 아동은 그

러한 상황에서 덜 자극적이 되며, 더 동기적이고, 부모의 메시지와 지침을 받아들이고 실행한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인 표현을 모방하게 되고 정서와 행동을 관리하거나 부모의 목표와 기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능한 능력을 갖게 된다(Mischel, 1981). 결과적으로 그러한 아동은 자신의 감정이 자극 받는 상황에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나 표현에 의해 자극된 아동에 비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전략들을 선택하고 실행하게 되며, 이러한 전략의 사용으로 인해 적응적인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시사점과 의의로는 기존연구와 달리 정서조절 능력과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개념정의와 측정에 있어서의 뚜렷한 차별화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첫째, 측정도구가 질문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일반적인 바람직성에 관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볼 때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정서조절 능력의 측정도구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비해 긍정적 정서표현의 조절에 대한 문항의 비율이 작고, 정서조절 전략 측정도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화,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와 행복, 즐거움 등의 긍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진 측정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 역시 어머니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을 조사하였다. 아동은 주로 동성의 행동을 모방하기 쉬우며 따라서 아버지가 남아의 모델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특정도시의 중류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적 편중성으로 인한 표집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섯째,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모-아동 하위체계 내에서의 부모의 행동 특성과 함께 부부 하위체계 내에서의 결혼생활 특성 즉, 결혼생활의 질이나 부부갈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Conger 등(1992)에 따르면 경제적 빈곤이 부부갈등을 일으키고 부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자녀의 조절이나 적응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족체계이론, Conger 등(1992)의 모델에 기초하여 경제적 빈곤, 부부갈등,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조절, 아동의 내면화 및 외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일련의 인과관계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접수일 : 2005년 05월 14일
- 심사일 : 2005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8월 12일

**【참 고 문 헌】**

민하영(1998).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의 통제 소제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민하영·유안진(1998).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 행동 척도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7), 83-96.

박서정(2004).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 조절 전략 및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성연(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151-165.

박혜경(2001).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병렬(2004). 구조방정식 모델을 위한 SIMPLIS 활용과 실습. 서울: 청목출판사.

안미경(1997).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목(1990). 공변량 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이순희(199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감성지능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희수(2000).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 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선배(1996). Lisrel 구조방정식 모델. 서울: 영지문화사.

홍애경(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yers, T.(1991). *A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assessment of children's coping: Testing alternative theoretical mode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izona State.

Ayers, T., Sandler, I., Bernzwing, J., Harrison, R., Wampler, T. & Lustig, J.(1990). *Handbook for the content analysis of children's coping responses*. Unpublished manuscript, Arizona State University.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Bridges, L. J., Denham, S. A. & Ganiban, J. M.(2004). Definitional issues in emotion research. *Child Development*, 75, 340-345.

Buss, K. A. & Goldsmith, H. H.(1998). Fear and anger

- regulation in infancy: Effects on the temporal dynamics of affective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69, 359-374.
- Cole, P. M., Martin, S. E. & Dennis, T. A.(2004). Emotion regulation as a scientific construct: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research. *Child Development*, 75, 317-333.
- Compas, B. E.(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Connor-Smith, J. K., Compas, B. E., Wadsworth, M. E., Thomsen, A. H. & Saltzman, H.(2000). Response to stress in adolescence: Measurement of coping and involuntary engagement stress respon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 976-992.
- Denham, S. A.(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ew York: Guilford Press.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 1418-1438.
-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Troyer, D., Speer, A. L., Karbon, M. & Switzer, G.(1992). The relation of maternal practices and characteristics to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siveness. *Child Development*, 63, 583-602.
- Eisenberg, N., Fabes, R. A., Murphy, B. C., Maszk, P., Smith, M., & Karbon, M.(1995). The role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i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6, 1360-1384.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 513-534.
- Eisenberg, N., Gershoff, E. T., Fabes, R. A., Shepard, S. A., Cumberland, A. J., Losoya, S. H., Guthrie, I. K., Murphy, B. C.(2001).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social competence: Mediation through children's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7, 475-490.
- Garber, J., Braafladt, N. & Weiss, B.(1995). Affect regulation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93-115.
- Gillom, M., Shaw, D. S., Beck, J. E., Schonberg, M. A. & Lukon, J. L.(2002). Anger regulation in disadvantaged preschool boys: Strategies, antecedents, and the development of self-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38, 222-235.
- Gottman, J. M. & Katz, L. F.(1989). Effect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 403-417.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Mahwah, NJ: Erlbaum.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271-299.
- Hardy, D. F., Power, T. G. & Jaedicke, S.(1993). Examining the relation of parenting to children's coping with everyday stress. *Child Development*, 64, 1829-1841.
- Hoffman-Plotkin, D. & Twentyman, C. T.(1984). A multimodal assessment of behavioral and cognitive deficits in abused and neglected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55, 794-802.
- Holmbeck, G. N.(1997). Toward terminological, conceptual, and statistical clarity in the study of mediators and moderators: Examples from the child-clinical and pediatric psychology literatur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4), 599-610.
- Holye, R. H. & Smith, G. T.(1994).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linical resear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3), 427-429.
- Kaufman, J. & Cicchetti, D.(1989). Effects of maltreatment on school-aged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ssessment in a day-camp set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16-524.
- Kopp, C. B.(1982).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354.
- Mcfadyen-Ketchum, S. A., Bates, J. E., Dodge, K. A. & Petit, G. S.(1996). Patterns of change in early childhood aggressive-disruptive behavior: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ions from early coercive and affectionate mother-child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67, 2417-2433.
- Mischel, W.(1981). Metacognition and the rules of delay. In J. H. Flavell & L. Ross (Eds.),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pp. 240-27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rphy, B. C.,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 Guthrie, I. K.(1999). Consistency and change in children's emotionality and regulation: A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6, 413-444.
- Parke, R. D.(1994). Progress, Paradigms, and unresolved

- problems: A commentary on recent advances in our understanding of children's emo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57-169.
- Patterson, J. M. & McCubbin, H. I.(1987). Adolescent coping style and behavior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olescence*, 10, 163-186.
- Perry, D. G. & Bussey, K.(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CA: Prentice-Hall, Inc.
- Saarni, C.(1997). Coping with aversive feelings. *Motivation and Emotion*, 21(1), 45-63.
- Shields, A. & Cicchetti, D.(1995). *The development of an emotion regulation assessment battery: Reliability and validity among at-risk grade school children*. Poster presental a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Shields, A. & Cicchetti, D.(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381-395.
- Silk, J. S., Steinberg, L. & Morris, A. S.(2003). Adolescent' emotion regulation in daily life: Links to depressive symptoms and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4, 1869-1880.
- Thompson, R. A.(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A.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25-52.

[ 부록 1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조절 능력간의 상관관계

	부적응적 정서조절	적응적 정서조절
애정·합리적 지도	-.07	.27***
거부·강압	.15***	-.08
방임	.06	-.06
일관성 있는 규제	-.01	.11**

\*\* p<.01 \*\*\* p<.001

<표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조절 전략간의 상관관계

정서조절전략	양육행동	애정·합리적 지도	거부·강압	방임	일관성 있는 규제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28***	.01	-.09*	.23***
소극·회피적		.02	.19***	-.07	.07
공격적		-.17***	.33***	.12**	-.09*

\* p<.05 \*\* p<.01 \*\*\* p<.001

<표 3>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과 정서조절 능력간의 상관관계

정서조절 전략	정서조절 능력	정서조절 능력	
		부적응적 정서조절	적응적 정서조절
적극·사회지지 추구적		.07	.10*
소극·회피적		.06	-.05
공격적		.19***	-.12**

\* p<.05 \*\* p<.01 \*\*\* p<.001



[ 부록 2 ] 각 척도별 요인분석 결과

<표 1>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문항과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13.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신다.	0.71	-0.12	-0.11	0.09
16.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신다.	0.66	-0.11	-0.12	0.17
10.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0.64	-0.24	-0.06	0.08
24. 새로운 일에 대해 나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신다.	0.63	-0.14	0.07	0.12
7.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되는가 그 이유를 말해 주신다.	0.60	0.18	-0.18	-0.14
20. 나의 잘못에 대해 하를 내실 때 이유를 나에게 말해준다.	0.60	0.11	-0.22	-0.01
23. 나에게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해주신다.	0.58	-0.14	0.08	0.12
11. 내가 질문을 하면 아는데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애쓰신다.	0.58	-0.09	-0.18	0.03
19. 나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하신다.	0.58	-0.27	0.12	0.20
1. 평소에 나에게 칭찬을 잘해 주신다.	0.53	-0.22	0.18	0.17
12. 나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실 때가 많으시다.	-0.18	0.68	-0.10	-0.17
6. 어머니가 바라는 행동을 하도록 나를 때리거나 위협하신다.	-0.04	0.67	-0.10	0.23
14. 화가 나면 내게 자주 화풀이를 하신다.	-0.09	0.60	0.25	-0.17
8. 내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어머니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신다.	-0.26	0.59	0.10	0.07
21. 내가 하는 일이 옳더라도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하신다.	-0.06	0.54	0.36	0.09
22. 내가 간혹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쓰지 않으신다.	-0.15	0.07	0.70	-0.06
17. 내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른척 헤버릴 때가 많으시다.	0.00	0.20	0.68	-0.10
9. 하면 안되는 일도 내가 조르면 그냥 하게 놔두신다.	-0.03	-0.05	0.66	-0.04
26. 내가 정해진 취침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꼭 지키도록 하신다.	0.13	-0.01	-0.05	0.80
5. 정해진 TV시청시간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0.24	0.08	-0.16	0.72
고유치	4.77	1.89	1.69	1.19
설명력(%)	23.85	9.46	8.47	5.95
누적설명력(%)	23.85	33.31	41.78	47.73

&lt;표 2&gt;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의 문항과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29.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0.73	-0.03	0.21
11.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았다.	0.73	0.01	0.07
25.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며 야단치는 것과 관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았다.	0.66	0.10	0.17
18.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옛날에 썼던 방법이나 새로운 방법 등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다.	0.61	0.05	0.20
10.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친한 사람과 함께 생각했다.	0.60	0.15	0.04
27. 나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친구나 형제에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형제나 친구와 비교해가며 야단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았다.	0.58	0.11	0.02
2. '난 문제없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0.55	-0.12	0.14
1. 어머니나 아버지가 왜 나를 형제나 친구와 비교해가며 야단치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0.39	-0.07	0.23
4. 친한 사람에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화가 나는지, 슬픈지 등을 이야기했다.	0.39	0.33	0.04
24.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나를 화나게 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똑같이 복수했다.	0.04	0.71	0.07
12. 화를 내며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따졌다.	0.07	0.70	-0.05
20. 형제나 친구들한테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다녔다.	-0.04	0.66	0.09
6.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 말 또는 나쁜 말을 하거나 일부러 놀리는 행동을 했다.	-0.03	0.63	0.09
21.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일부러 말을 하지 않거나 상대하지 않으려 했다.	0.00	0.63	0.34
17.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똑같이 앙갚음을 해 줄 방법을 생각했다.	0.13	0.61	0.21
28. 어머니나 아버지가 형제나 친구와 나를 비교하며 야단치는 이런 일이 꿈이었으면 하고 바랬다.	0.11	0.05	0.73
19. 기적이 일어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랬다.	0.09	0.10	0.72
22. 나를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며 야단치는 어머니나 아버지 때문에 혼자 조용히 울었다.	0.12	0.20	0.62
26.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뭐라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그냥 참았다.	0.00	0.08	0.51
9. 부처님, 하나님, 천주님 등에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0.22	0.18	0.51
15. 되도록 이러한 문제를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0.12	0.03	0.44
8. 좋아하는 강아지나 인형, 사진 등을 보면서 속상하거나 슬픈 내마음을 이야기했다.	0.20	0.16	0.42
14.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친구나 형제와 비교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0.34	-0.13	0.41
고유치	4.88	2.66	1.68
설명력(%)	21.23	11.56	7.29
누적설명력(%)	21.23	32.79	40.08

<표 3>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의 문항과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1	요인2
13. 남에게 방해될 정도로 에너지와 흥분을 폭발시키는 경향이 있다	0.76	0.10
22.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거나 피로움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흥분한다	0.74	-0.01
14. 어떤 행동에 대해 어른들이 “안돼”라고 말하거나 제재시키면 화를 낸다	0.66	-0.08
20. 충동적이다	0.63	-0.05
8. 폭발하듯이 화를 내며 쉽게 짜증을 낸다	0.62	-0.10
2.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0.56	-0.06
10. 다른 사람이 고통 받을 때 즐거워한다	0.55	-0.14
17. 놀이에 다른 아이를 끌어들이려 할 때 지나치게 흥분한다	0.51	-0.04
12. 어른에게 울어대거나 성가시게 붙어다닌다	0.51	-0.10
24. 놀이에 다른 친구들을 참여시키려고 할 때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낸다	0.47	-0.27
6. 쉽게 좌절한다	0.44	-0.21
23. 친구들이 자신을 적대시하거나, 공격하거나, 참견하면 화, 두려움, 좌절, 고통같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다	0.30	0.11
7. 또래가 말을 걸면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0.15	0.63
3. 어른들이 말을 걸면 호의적이거나 공손하게 반응한다	-0.21	0.61
1. 명랑하다	0.10	0.61
5. 당황스럽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빨리 회복한다	0.04	0.54
21. 다른 사람이 당황스러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면 관심을 보이거나 걱정스러워한다	-0.09	0.48
15. 슬프거나, 화나거나, 두렵거나, 무서울 때 말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	-0.16	0.46
11. 흥분되는 상황에서 흥분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0.25	0.43
4. 한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쉽게 전환한다	0.19	0.41
고유치	4.43	2.16
설명력(%)	22.16	10.79
누적설명력(%)	22.16	32.96